

근대 일본의 영어 번역론 연구*

- 다카하시 고로(高橋五郎)의 『영문역해법』(英文譯解法)을 중심으로 -

김성은**
jnu2012@jnu.ac.kr

<目次>

- | | |
|-----------------------|--------------------------|
| 1. 머리말 | 4.2 번역을 통한 근대 일본어 창출 |
| 2. 다카하시 고로의 영어 관련 저역서 | 4.3 번역의 실천 |
| 3. 『영문역해법』의 개요 | 5. 추상명사, 속담, 관용구의 의역(意譯) |
| 4. 직역(直譯)의 이상 | 6. 맺음말 |
| 4.1 원문에 대한 충실함 | |

主題語: 다카하시 고로(Takahashi Gorō), 영문역해법(How to Properly Translate English into Japanese), 축자역(Word for word transla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의역(Free translation)

1. 머리말

기독교 역사학자 에비사와 아리미치(海老沢有道)는 다카하시 고로(본명은 吾良, 1856-1935)를 “메이지시대 계몽적 번역자, 영문학자, 기독교 평론가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박식하고 재능이 많은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만년에는 학계에서 잊혀져 불우하게 생을 마감한 인물”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¹⁾

다카하시 고로의 활동을 크게 구분해 보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어 성서번역에 참여한 번역가이다. 그는 1874년 선교사 브라운(Samuel Robbins Brown)이 위원장이 되어 시작한 일본어 신약성서번역위원회에 참여했다. 1879년 브라운이 귀국한 후에는 헵번(James Curtis Hepburn)이 위원장이 된 제2차 성서번역위원회를 도와 신약성서 번역을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은 2018년 10월 13일 한국일본어문학회 제5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근대 일본의 영어 번역론의 이동과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1) 海老沢有道(1963)「高橋五郎著訳書目録」『史苑』第23卷 第2号, p.1

완성하고, 구약성서 번역에도 참여했다. 성서번역 외에도 『엘리자베스 소전(小傳)』 등을 번역했다.

둘째, 각종 사전을 편찬했다. 헵번 선교사를 도와 『和英語林集成』(초판 1867년) 개정증보에 참여하였다. 그가 참여한 1886년 제3판은 헵번식 로마자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치가와 요시오(市川義夫)가 편찬하고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가 교정한 『英和和英字彙大全』을 개정하여 1888년 『和英袖珍字彙』를 간행했다. 그리고 니와 고로(丹羽五郎)에게 위촉되어 1888년 『漢英対照いろは辞典』(이하, 『이로하사전』)을 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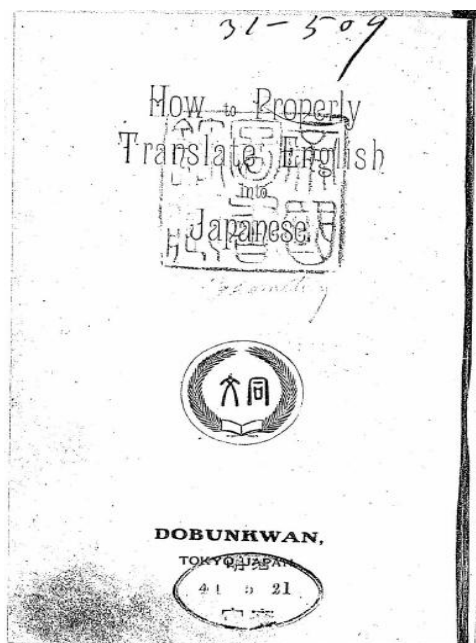
셋째, 기독교 평론가로 활약했다. 1880년 『육합잡지』(六合雜誌)에 신불(神佛)을 비판하는 논고를 게재했다. 1891년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불경사건, 1893년 교육과 종교의 충돌 사건 시기에는 『국민의벗』(國民之友)에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에 대한 비판 논문을 게재하면서 기독교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종교적 논쟁에 대해 근대 역사학자 스기이 로쿠로(杉井六郎)는 다카하시를 근대 일본에서 굴지의 논객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²⁾

다카하시가 남긴 저역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41년 기무라 요시지(木村嘉次)의 『다카하시 고로 선생 저역서 목록』(高橋五郎先生著訳書目録), 1963년 에비사와 아리미치의 『다카하시 고로 저역서 목록』(高橋五郎著訳書目録), 1974년 히라이 노리(平井法)의 「다카하시 고로」(高橋五郎) 등에 그의 저역서 목록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³⁾ 하지만 그의 저역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성복음서』(聖福音書)라는 성서번역, 『이로하 사전』이라는 사전편찬에 국한되어 있다.⁴⁾

2) 杉井六郎(1984)「高橋五郎小論」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編)『『六合雜誌』の研究』教文館、p.1

3) 木村嘉次(1941)「高橋五郎先生著訳書目録」『書物展望』第11卷8号、書物展望社、pp.60-70、海老沢有道(1963)「高橋五郎著訳書目録」『史苑』第23卷 第2号、pp.1-15、平井法・高岸照子(1974)「高橋五郎」昭和女子大学近代文学研究室『近代文学研究叢書』第39卷、昭和女子大学近代文化研究所、pp.246-315

4) 日沖直子(2016)「高橋五郎訳『聖福音書』をめぐる--明治のカトリック教会についての一考--」『アジア・キリスト教・多元性』14、現代キリスト教思想研究会、pp.55-72、根本真由美(2007)「高橋五郎『和漢雅俗』いろは辞典」の資料性」『日本語の研究』日本語学会、pp.94-106、鈴木英夫・福井靖子(2001)「翻訳委員社中訳『新約全書』と高橋五郎」『白百合女子大学キリスト教文化研究論集』(2)、白百合女子大学、pp.3-30



<그림1> 다카하시 고로의 『영문역해법』 표지

다카하시 고로의 저역서중에는 영어학습과 영어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1894년부터 릿쿄대학(立教大学)에서 영어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만년까지 고마자와대학(駒沢大学) 등에서 영문학 강의를 계속하였다. 자연주의 문학가 이와노 호메이(岩野泡鳴), 구니키타 돗포(國木田独歩) 등도 다카하시에게 영어를 배웠다. 이러한 다카하시 고로의 경력을 볼 때 영어학자로서의 활동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1908년에 저술한 『영문역해법』(英文譯解法, 이하 『영문역해법』)을 분석하면서 그의 영어 교수자로서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문역해법』은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를 어떻게 읽고 일본어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번역을 위한 영문법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다.

메이지시대 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영어학습의 환경이 정돈된 근대 일본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영어 학습서에 나타난 번역관은 영어 교수자의 입장에서 장래의 번역가나

5) 다카하시 고로의 영어 관련 저역서에 관한 연구는 다케나카 다쓰노리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竹中龍範 (2015)「高橋五郎『最新英語教習法』をめぐって」『言語表現研究』(31)、兵庫教育大学言語表現学会 pp.1-12

문학가에게 번역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다카하시 고로가 근대 일본의 지배적인 번역규범의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의 번역규범을 어떻게 제안했는지, 근대 일본의 번역론 모색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다카하시 고로의 영어 관련 저역서

다케나카 다쓰노리(竹中龍範)는 다카하시의 저작 중 영어 관련 저작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⁶⁾

<표1> 다카하시 고로의 영어 관련 저역서 목록

	간행연도	저역서명	비고
1	1886	『英米語学独案内』	
2	1887	『英和和英袖珍字彙 和英之部』	高橋五郎校訂
3	1887	『英和和英袖珍字彙 英和之部』	高橋五郎校訂
4	1887	『英文読書初歩』1卷-3卷	
5	1887-1888	『漢英対照いろは辞典』	
6	1888	『和英袖珍字彙』	
7	1897	『精選英独和会話篇』	
8	1897	『英文大家集注釈』	
9	1897-1901	『英独詩文研鑽』第1篇-第4篇	
10	1898	『英文学短編詩集評釈』	
11	1901	『英語評釈紅紫爛漫』	
12	1901	『英文質疑応答録』卷之一	
13	1903	『最新英語教習法』	
14	1904	『最近英和辞林』	
15	1907	『新式英語塾遠法』	
16	1907	『英学実験百話 附比較世界語論』	
17	1908	『英文譯解法』	
18	1909	『訳注近世英文学』	
19	1909	『対照双訳英語雑俎』	
20	1909	『英語正確使用法』	
21	1910	『英語卓上便覧』	

6) 竹中龍範(2015)、前掲論文、p.3

먼저 <표1>의 저역서 목록 중에서 다카하시 고로가 1908년 『영문역해법』이 발간되기까지 영어 교수법과 함께 사전 편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번역가와 영어 교수자로 활동한 그에게 사전 편찬과 영문법서 발간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었을 것이다. 1903년 『최신영어교습법』(最新英語教習法, 이하 『최신영어교습법』) 「제19장 외국어 유공(有功) 독수법(獨修法)」을 살펴보면 다카하시 고로가 외국어 학습을 위해 사전과 문법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독학은 처음부터 다소 사려가 필요하다. 자국어에 능통해야한다. 독학은 특히 처음에는 주로 모국어와 비교하면서 이루어진다. 비교해야 할 재료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자국어이다. 때문에 12, 3세 이하의 아이는 실은 독학을 할 수 없다. 자국의 문법을 모르고 어떻게 외국 문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외국어 독해는 사전과 문법서의 힘을 빌려 비로소 잘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중략) 독학자는 3권의 사전을 닳아질 때까지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2권의 문법서를 까맣게 빨강게 적으며 더럽히지 않으면 안 된다.」(줄역,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이하동)

여기서 다카하시 고로는 외국어를 독학하는 사람에게 혼자 학습하기 위한 필수품이 사전과 문법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는 자국어의 틀을 기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 문법을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사전과 문법서이기 때문이다.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사전과 문법서를 벗 삼아 늘 가까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다카하시가 사전 편찬에서 중점을 둔 내용은 무엇일까? 1887년 8월 13일에 기록된 『이로하 사전』의 머리말(緒言)을 살펴보자.

여기서 근래의 일본 사전의 사정을 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모두 조잡하고 어휘 수가 심히 적다. 또한 그 글자를 찾는 방법이 매우 어려워져 찾는 사람의 정신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십중팔구는 찾지 못하고 헛수고할 뿐만 아니라 다행히 찾았다 하더라도 단지 해당하는 한자(漢字)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요즘 간행된 영일(英和)사전은 단지 외국인과 영어를 아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반 일본인이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휘 수도 부족하여 번역어 역시 적절하지 않다. 또한 현재 유행하는 한어 수집이 극히 적어서 실용과 떨어진 감이 많다. 본 사전은 서양의 사전 편찬 체제를 모방하여 이로하 순서를 따라 모든 어휘를 싣고 하나하나 그 해석을 붙이고 한어와 영어에 해당하는 유의어

7) 高橋五郎(1903)『最新英語教習法』東文館、pp.348-349

를 많이 열거하였으므로 어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의미가 일목요연하다. 또한 이 책은 주로 일한(和漢)학자를 위해 만들었다. 아울러 양학자를 위해서 편리하도록 고안했다. 그러므로 이 세 학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⁸⁾

여기서 다카하시 고로는 이전까지의 사전의 문제점을 3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① 어휘를 찾기 어려운 사전 체제의 문제점, ② 영어 어휘의 의미를 일본어로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한자어 하나에 대응시킨 문제점, ③ 외국인과 영어를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전이라서 어휘 수가 부족하고 번역어도 적절하지 않아 일반 일본인이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로하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했다고 설명한다. ① 서양의 사전 편찬 체제를 모방하여 이로하 순서를 따라 모든 어휘를 실음, ② 모든 어휘에 하나하나 해석을 붙이고 유의어를 많이 열거하여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함, ③ 일, 한, 양학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이로하 사전은 영어를 모르는 일반 일본인을 독자로 삼고 있으며 유의어를 많이 열거하여 적절한 번역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3. 『영문역해법』의 개요

다음으로 1908년 『영문역해법』에 나타난 영어학습과 번역의 관계를 살펴보자.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 제1장 영문역해술의 대필요 및 대곤란
- 제2장 영문역해가 종래 불완전한 까닭
- 제3장 영문역해가 충실하고 정확할 것
- 제4장 영문역해의 비결
- 제5장 영문역해의 각오
- 제6장 관사 역해법
- 제7장 명사 역해법
- 제8장 동사 역해법

8) 高橋五郎(1888)『漢英對照いろは辞典』長尾景彌, p.1

제9장 전치사 및 부사 역해법-다시 동사와 함께 논함

제10장 문제 및 그 밖의 품사 역해법

제2편

참고번역물⁹⁾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1편에서는 영문역해가 필요한 근대 일본의 현실과 실제적 곤란함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영문역해의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번역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실천하기 위해 품사별로 각 장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번역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편에서는 실제로 번역된 작품의 예를 모아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카하시 고로는 왜 품사별로 장을 나누어 영문역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그 실마리를 1903년 『최신영어교습법』 「제14장 문법교습법범론」에서 찾아보자.

그러나 성인의 경우는 이미 자국의 문법을 다소 알기 때문에(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문법이 교육되는 시대에는) 이미 알고 있는 품사어격 등을 가지고 미지의 외국어를 설명하면 잇달아 짐작 가는 바가 있어서 이해에 편리한 점이 많다. 아이는 전혀 반대이다. 이해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모어의 문법조차도 아직 어둡기 때문에 외국어 문법을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마치 1작(勺)의 그릇에 1말의 물건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아마도 모두 넘쳐 버릴 것이다. 무엇이 흡수되고 동화되어 나중에 남는 것이 있겠느냐!¹⁰⁾

여기서 다카하시는 12, 3세 이하의 유아동에게 문법을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아니라고 설명한다. 반대로 성인의 경우에는 모국어 문법에서 알고 있는 품사어격 등을 활용하여 외국어를 설명하면 짐작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영문역해법의 품사 중심 구성은 성인 일본인의 영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품사 구분만이 영어학습의 능사가 아님을 다카하시는 의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교수 방법으로는 모범문장 중심으로 번역해 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다른 문장에 응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긴급한 문제는 무엇이나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세상에 행해지지 않은 이상적인 교수

9) 高橋五郎(1908)『英文譯解法』同文館、pp.1-2

10) 高橋五郎(1903)、前掲書、pp.242-243

법을 허무하게 기다리지 않고 당장 영어역해 기술을 스스로 배워 잘 해야 한다는데 있다. 우리들이 생각건대 회화처럼 여기에도 또한 기초를 두는 것을 최대 급무로 한다. 즉 모범문장을 약간 취하여 숙독완미(熟讀玩味)하고 분해종합하여 충분한 역해를 배우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다른 무수한 문장에 응용하면 그 활용이 막힘이 없을 것이다.(중략) 학생들은 또한 동시에 자국어 수련에 중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영어를 이해해도 일본 문장에 어두우면 이것을 숨써 좋게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걱정과 폐해(通患)이다. 신문잡지 또는 출판 서적에서 뛰어난 번역자를 구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는 탄성이 일반적이다.¹¹⁾

다카하시 고로는 「제5장 영문역해의 각오」에서 숙독완미, 분해종합이라고 표현하면서 제6장에서 관사부터 시작되는 품사별 번역법을 예고하고 있다. 영어학습법의 목표가 번역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많은 예문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품사별로 문장을 분해해 보고 그 의미를 종합하면서 영어를 어떻게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는지 기초를 배우고 다른 문장에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일본어 구사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근대 일본에서 신문잡지, 서적 출판이 활발하여 번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번역자를 찾기 어려운 것은 영어를 이해해도 일본어로 매끄럽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카하시는 1903년 『최신영어교습법』 「제15장 문법 실용 교습법 및 사전의 논함」에서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예를 들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교육 현장에서 문법이라는 규칙에 치우쳐 실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문법은 읽기 교재(讀本)를 함께 사용하여 읽기 교재와 연관시키면서 문법의 기초를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²⁾

따라서 1908년 『영문역해법』에서도 구성은 문법 중심으로 나누었지만 각 장마다 많은 예문을 제시한 것은 문법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풍부한 예문을 통해 살아있는 영어를 가르치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법 교수를 위해 독해 자료와 함께 많은 예문 제시를 중요시하는 태도는 『이로하 사전』 머리말에서 해당 단어를 사전에서 설명하기 위해 유의어를 많이 열거하는 방법과도 상통한다.

11) 高橋五郎(1908)、前掲書、p.138

12) 高橋五郎(1903)、前掲書、pp.251-272

4. 직역(直譯)의 이상

다음으로 다카하시의 번역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카하시는 『영문역해법』 「제3장 영문역해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에서 번역을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번역은 대체로 3종류가 있다. 이른바 (1) 축자역 (2) 직역 (3) 의역(義訳) 혹은 의역(意訳). 이것을 영어로 하면 (1) Word for word translation, (2) Literal translation, (3) Free translation의 3종류이다. 그 중 첫 번째는 오직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와 문맥 및 어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다. 반드시 자국어로 문장이 통하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능한 원문에 있는 만큼의 문자로 번역하고 또한 가능한 원문의 구조를 갖춘다. 그럴 수 없으면 쓸데없는 관용구 혹은 불필요한 변경을 원문에 더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세 번째는 읽고 원문의 의미를 취하여 자유자재로 번역하고 반드시 원문의 문자와 구조를 고수하지는 않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번역의 최대 요건은 먼저 원문의 정신(spirit)을 깊이 연구하고 또한 그 일반적인 구조와 특수한 관념을 묘사하고 또한(이쪽의 문법을 해치지 않는 한) 가능한 원문의 문체를 지면에 재현하는데 있는 것 같다. 결국 그러므로 번역은 이 3종류 중 두 번째, 즉 직역 literal translation을 최상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³⁾

다카하시는 번역을 축자역, 직역, 의역의 3종류로 나누고 그 중 직역을 최상의 번역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먼저 축자역은 초보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그 번역문이 온전한 일본어 문장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단지 글자의 의미와 문맥을 지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Now 夫”, “heaven’s 天之”, “justice 義”, “is 也”, “not 不”, “know 知” 등, 단어와 구의 일대일 대응의 예를 제시한다. 그는 초보자는 축자역으로 원문의 진정한 의미를 간파하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 학습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 고대의 한문훈독이 일종의 축자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어는 한문에 친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축자역도 성공적인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양어 사이에서는 축자역으로 번역하여도 그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어와 일본어와 같이 어휘와 문법 면에서 동떨어진 언어 사이에는 축자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직역에 대해서는 원문을 충실히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카하시는

13) 高橋五郎(1908), 前掲書, pp.55-56

직역의 좋은 예로 성서번역을 들고 있다.

직역이란 즉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해낸 것이다. 단지 충실하게 번역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되어야만 한다. 무릇(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이것이 에머슨이 All good thoughts are translatable이라고 단언한 까닭이다. 그 중에 가장 저명한 예가 소위 성서번역이다. 성서는 좋은 사상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어로 대부분 독자적으로 직역되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것도 이와 비슷하다. 성서는 한 글자 한 구 모두 신의 영감이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증감첨삭하지 않는 것이 천하의 통론이다. 따라서 종래 성서번역의 번역본을 표준으로 하여 5개, 10개, 20개의 외국어를 독학, 자습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무릇 성서 번역본은 제일 직역으로 번역되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의 성서 번역본은 단지 직역일 뿐만 아니라 다수는 모범적인 문장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¹⁴⁾

여기서 다카하시가 직역을 중요시한 배경에는 성서번역 경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카하시 고로는 1873년 양학에 뜻을 두고 상경하여 난학자 오가타 고안(緒方洪庵)이 오사카에 세운 오가타쥬쿠(緒方塾)에 들어갔다. 여기서 훗날 요코하마 밴드의 중심인물이 된 우에무라 마사히사(植村正久)와 알게 되고 그의 소개로 요코하마의 브라운학교에서 선교사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당시 일본어 성서번역은 번역위원장 브라운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는데, 다카하시도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번역에 참여했던 것이다. 다카하시의 기록에 의하면 구약의 시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신구약전서의 번역, 수정에 선교사들과 함께 임했다고 한다.¹⁵⁾

본고에서는 다음 3가지 점에 주목하여 그의 번역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원문에 대한 충실함

다카하시 고로는 1874년 햅번, SR 브라운, 그린(Daniel Crosby Greene) 등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성서번역위원이 발족될 때, 오쿠노 마사쓰나(奥野昌綱), 마쓰야마 다카요시(松山高吉)와 함께 일본인 조력자의 한명으로 참여했다. 그 후 다카하시와 마쓰야마는 일본어 성서 번역과정에 대해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먼저 다카하시의 신약성서 번역이 중국어역에 기초하여 중역되어서 일본인들이 만족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14) 高橋五郎(1908), 前掲書, pp.68-69

15) 高橋五郎(1888年5月4日)「松山高吉氏の弁駁に答ふ『国民之友』21、民友社、p.36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번역서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예를 든 옛날 번역은 중국어역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의 신약전서도 또한 중국어역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오십보 백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릇 이 신약성서를 번역하는데 일종의 기이한 사정이 있어서 전적으로 중국어역을 모방하여 이것을 번역하였다. 이것이 이 번역이 모든 사람을 기꺼이 따르게 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다카하시는 중역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영어와 같은 서양어에서 일본어로 직접 번역해야 한다는 원문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마쓰야마는 일본어 성서번역은 그리스어 원전을 토대로 번역했고 중국어역 외에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번역 성서도 참고했다고 반박했다.¹⁷⁾

마쓰야마의 반박에 다카하시도 지지 않고 다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무릇 마쓰야마씨는 청정결백하고 신앙이 견고한 군자이지만 처음부터 영어를 싫어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과 밖 양쪽을 합치는 사업에서는 단지 그 일부를 알 뿐이다. 그러므로 양쪽을 아는 나의 비평을 사실과 다르다고 마쓰야마씨가 단언하는 것은 취할 것이 못된다.¹⁸⁾

다카하시는 번역자로서 영어 원문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근거로 마쓰야마에게 다시 반박하였다. 마쓰야마는 영어를 모르지만 자신은 영어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성서번역의 사정에 관해서는 자신이 더 자세하고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또 구약성서 번역에서도 실제로 외국인위원의 번역문을 개정한 것은 자신이라고도 말했다.¹⁹⁾

이와 같이 다카하시가 마쓰야마와의 논쟁에서 자신은 영어에도 능통했지만 마쓰야마는 영어를 몰랐다고 반박하는 점을 볼 때, 그는 번역자로서 원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자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자로서 원문에 대한 충실함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한문 중역의 성서번역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고, 함께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다른 일본인 번역자에 비해 자신은 영어에 능통하다는 상대적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게 했던 것이다.

앞의 인용문 『영문역해법』 「제3장 영문역해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성서는 한 글자 한 구 모두 신의 영감이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증감침삭하지 않는 것이 천하의 통론이다”라는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다카하시는 직역의 대표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예를

16) 高橋五郎(1888年3月2日)「基督教の聖書翻譯完成す」『国民之友』17、民友社、p.31

17) 松山高吉(1888年4月6日)「高橋氏の聖書翻譯の批評を読む」『国民之友』19、民友社、p.34

18) 高橋五郎(1888年5月4日)、前掲、p.36

19) 高橋五郎(1888年5月4日)、前掲、p.36

성서번역이라고 꼽았다. 다카하시가 원문에 대한 충실함을 번역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던 이유는 “성서=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사상의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번역 과정에서 원문은 절대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적 번역관이 배경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카하시는 성서번역 경험에 기초하여 직역을 최상의 번역법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4.2 번역을 통한 근대 일본어 창출

앞의 인용문 『영문역해법』 「제3장 “영문역해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에서 다카하시는 “무릇 성서 번역본은 제일 직역으로 번역되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의 성서 번역본은 단지 직역일 뿐만 아니라 다수는 모범적인 문장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가 성서를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직역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근대 일본의 직역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영어 학습서 중에서 번역방법을 논한 책은 메이지시대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주로 간행되었다. 1897년 도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의 『영어교수법』(英語教授法)을 예로 살펴보자. 도야마는 영미 유학을 경험하고 철학을 공부한 인물이다. 도쿄대학 교수, 총장을 거쳐 문부대신을 지내면서 한자폐지, 로마자 사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제5장 번역의 방법」에서 직역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는 왕왕 직역을 배척하고 의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견 지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오해가 많다. 그들이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괴물(化物的) 번역법이다. 진정한 직역이 아니다. 진정한 직역은 결코 배척할 것이 아니다.²⁰⁾

도야마는 메이지시대에 일반적으로 직역이라고 알려진 방법은 진정한 직역이 아닌 괴물 번역법에서 생겨난 괴역(怪譯), 오역, 우역(愚譯)이라고 주장한다. 의역에 대해서는 “진정한 직역보다도 쉬운 번역법으로 의역은 원문의 묘미에도 맞지 않는다. 오직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기를 궁리하므로 매우 쉬운 번역이다. 그러므로 이를 주장하는 무리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추천하지 않는다.²¹⁾

다카하시 역시 1903년 『최신영어교습법』 「제16장 역해역독 교습법 부록 전치사 관사 등의

20) 外山正一(1897)『英語教授法』大日本図書、p.44

21) 外山正一(1897)、前掲書、pp.44-45

교습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찍이 유행한 『독본직역』(讀本直訳)^{リードル}류(실은 직역이 아니라 오역이다)가 영학사회를 심히 부패하게 했다.(중략) 우리의 독본직역이라는 것은 영어와 일본어 양쪽을 망쳐서 취할 것이 없다. 배우는 사람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특히 전치사에서 그 폐해가 가장 심하다.²²⁾

여기서 다카하시는 잘못된 번역이 근대 일본어를 부패하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직역, 즉 오역이 영어 문장과 일본어 문장 양쪽을 모두 망쳐버렸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16장 역해역독 교습법 부록 전치사 관사 등의 교습안」이라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 학습자에게는 전치사와 관사가 2대 난관이 되어 있으므로 유익하고 흥미 있는 예문을 암기하여 머리속에 새기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즉 다카하시는 번역문의 가독성도 원문에 대한 충실성 못지않게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번역이 근대 일본어 창출로 이어지도록 오역이 아닌 진정한 직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4.3 번역의 실천

그렇다면 다카하시 자신은 번역자로서 어떻게 자신의 번역관, 즉 원문에 대한 충실함과 일본어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실천했을까? 다카하시는 1894년 릿쿄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1895-97년에는 가톨릭교회의 위촉을 받아 가톨릭 성서 『성복음서』 상하권의 번역에 임하였다. 이전부터 메이지역 성서개역을 제창하고 있던 우에무라 마사히시는 다카하시 고로의 가톨릭 성서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라틴어 문자를 원본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유감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공평하게 이를 관찰한다면 다카하시씨의 번역문은 성서회사에서 번역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성서의 정신을 전하고 문체의 기력을 지키며 오늘날 일본 문장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이 매우 훌륭하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들어 양자를 비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心の貧しきものは福なり云々)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사용하는 일본어 복음서의 번역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어 원문을 보고 영어 번역과 대조해보면 ‘복이 있다(福ひなり)라는 문자의 기세가 강하며 감정이 매우 통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성서회사의 일본역에서는 이러

22) 高橋五郎(1903)、前掲書、pp.274-277

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心の貧しき者は福ひなり)라고 번역할 뿐이다. 원문의 천근의 무게가 번역문에서는 새털보다 가볍다. 그러나 다카하시씨의 번역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 있을지어다’(心の貧しき者は福ひなる哉)이다. 이러한 번역에 이르기까지 원문의 기세를 전달하고 산상수훈을 하는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기에 충분한 느낌이다. ‘복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라(福ひなる哉心の貧しきものや天国は彼等のものなればなり)’라고 하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²³⁾

여기서 “성서회사에서 번역된 것”은 개신교 성서번역본을 의미한다. 우에무라는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번역한 개신교 성서본역본에 비해 다카하시의 가톨릭 성서가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다는 점을 일본어 어미 사용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다카하시에게 이상적인 직역이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일본어로도 자연스러운 번역문이었다. 우에무라 마사히사의 다카하시 번역 성서에 대한 평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카하시는 원문에 충실한 직역과 일본어로서의 자연스러움을 모두 자신의 성서번역 과정에서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5. 추상명사, 속담, 관용구의 의역(意譯)

그러나 아무리 직역이 최선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어와 영어 문법의 구조적 차이로 직역할 수 없는 품사가 있다. 앞의 인용문 『영문역해법』 「제3장 영문역해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에서 번역을 3종류로 구분했을 때, 세 번째로 언급한 의역에 대해 살펴보자.

『영문역해법』 「제7장 명사역해법」(名詞訳解法)에서 다카하시는 추상명사(abstract nouns)와 현상문자(phenomenon-words)의 번역은 의역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추상명사와 현상문자의 번역법은 가장 주의가 필요하며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문장을 아름답게도 하고 추하게도 하므로 심후다대(深厚多大)한 유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카하시는 의역을 탈태 환골법이라고 비유하면서 “영문번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일본 및 중국의 언어문자는 추상적 사상과 발언을 싫어한다. 따라서(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추상적 관념은 일본인이나 청국 사람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나 영어는 그 발달의

23) 佐波亘(1976)『植村正久と其の時代』第4巻 復刻再版、教文館、pp.222-223

정도가 비교적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추상적 관념이나 언어를 좋아하여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본어 번역에서 선명하지 않은 곤란을 초래했다. 적어도 우리 일본어에서는 그것을 모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²⁴⁾

다카하시 고로는 추상명사를 번역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greatness”, “manhood”, “nobleness”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He has a greatness”를 “彼に偉大あり”로 번역하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을 보충하여 “彼は偉大の性格あり”라고 하거나, “위덕(偉德)”, “위공(偉功)”, “위업(偉業)” 등을 경우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등 일본어 번역에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또한 속담에 대해서도 직역은 어렵고 가능한 일본어에서 같은 의미의 속담을 찾아서 대응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Nothing venture, nothing have”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虎穴に入らずんば虎子を獲ず)로 번역해야 하고, “Hunger is the best sauce”는 “배고플 때 맛있는 것은 없다”(飢しい時に不味い物なし)로 번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추상명사와 속담은 원문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 의미의 핵심만 취하여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번역하는 의역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카하시는 일본어와 영어의 서로 다른 문장 구조에 주목했다. 무리한 직역으로 근대 일본어를 손상시키며 오역으로 평가되기보다는 품사에 따라 적절한 의역이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게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6. 맺음말

다카하시는 『영문역해법』 2편에서 다음과 같이 1편을 요약하고 있다.

제1편에서 우리는 번역의 성질을 깊이 연구하여 영문을 역해하는 방침을 추론하고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했다. 지금 여기에서는 좀 더 전체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예를 들어 일상 연습의 재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을 요약하면 번역은 충실한 한 글자를 가지고 전체를 관통해야 한다. 보통은 언어문자에 충실해야 한다. 만약 미문(美文)같이 언어문자가 강해서 충실할 수 없으면 마땅히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²⁵⁾

24) 高橋五郎(1908)、前掲書、p.193

25) 高橋五郎(1908)、前掲書、p.332

위의 인용문 속에 나타난 다카하시의 결론은 다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한 글자 한 글자의 번역에 충실해야 한다.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초보자에게 사전을 통해 축자적 의미를 먼저 알게 하고, 다양한 유의어를 제시하면서 일본어 번역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문법 구조에 충실하게 직역해야 한다. 일본어 문법을 해치지 않으면서 영어 문체를 일본어로 재현하며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직역은 근대 일본어를 창출하는데 공헌하며 영어와 일본어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번역법이다. 세 번째로 추상명사, 속담, 관용구 등, 영어와 일본어 사이의 문법 구조의 차이로 직역이 어려운 경우는 원문의 의미만 취하여 의역해야 한다. 가능한 직역을 해야 하지만 영어와 일본어의 문법적 차이로 직역이 어려울 때는 품사별로 나누어 의역의 방법도 함께 제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카하시 고로는 근대 일본에 뿌리내릴 수 있는 영어 번역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그가 근대 일본에서 일본어 문장을 망치는 오역이라고 비난받고 있었던 무리한 직역을 비판하면서 『영문역해법』에서 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게 이상적인 직역이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일본어로 자연스러운 번역문이었다. 다카하시가 직역을 최상의 번역법으로 주장했던 배경에는 성서번역 경험에 기초한 번역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번역을 통해 근대 일본어를 창출하고자 한 의도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원문에 대한 충실함과 일본어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자신의 가톨릭 성서 『성복음서』 상하권의 번역과정에서 실천하면서 사전과 문법에 기초한 직역의 모범을 제시한 선구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전>

高橋五郎(1888)『漢英對照いろは辞典』長尾景弼, p.1

<단행본>

佐波亘(1976)『植村正久と其の時代』第4巻復刻再版, 教文館, pp.222-223

高橋五郎(1903)『最新英語教習法』東文館, pp.242-243, pp.251-272, pp.274-277, pp.348-349

_____(1908)『英文譯解法』同文館, pp.1-2, pp.55-56, pp.68-69, p.138, p.193, p.332

外山正一(1897)『英語教授法』大日本図書, pp.44-45

<잡지>

高橋五郎(1888年3月2日)「基督教の聖書翻譯完成す」『国民之友』17, 民友社, p.31

_____(1888年5月4日)「松山高吉氏の弁駁に答ふ」『国民之友』21, 民友社, p.36

松山高吉(1888年4月6日)「高橋氏の聖書翻譯の批評を読む」『国民之友』19, 民友社, p.34

<논문>

- 海老沢有道(1963)「高橋五郎著訳書目録」『史苑』第23卷 第2号、pp.1-15
木村嘉次(1941)「高橋五郎先生著訳書目録」『書物展望』第11卷8号、書物展望社、pp.60-70
杉井六郎(1984)「高橋五郎小論」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編)『『六合雑誌』の研究』教文館、p.1
鈴木英夫・福井靖子(2001)「翻訳委員社中訳『新約全書』と高橋五郎」『白百合女子大学キリスト教文化研究論集』(2)、白百合女子大学、pp.3-30
竹中龍範(2015)「高橋五郎『最新英語教習法』をめぐって」『言語表現研究』(31)、兵庫教育大学言語表現学会、pp.1-12
根本真由美(2007)「高橋五郎『和漢/雅俗』いろは辞典』の資料性」『日本語の研究』日本語学会、pp.94-106
日沖直子(2016)「高橋五郎訳『聖福音書』をめぐって-明治のカトリック教会についての一考察-」『アジア・キリスト教・多元性』14、現代キリスト教思想研究会、pp.55-72
平井法・高岸照子(1974)「高橋五郎」昭和女子大学近代文学研究室『近代文学研究叢書』第39巻、昭和女子大学近代文化研究所、pp.246-315

논문투고일 : 2019년 01월 02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2월 07일
2차 수정일 : 2019년 0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15일

 <要旨>

근대 일본의 영어 번역론 연구

- 다카하시 고로(高橋五郎)의 『영문역해법』(英文訳解法)을 중심으로 -

김성은

본고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다카하시 고로의 영어학자로서의 활동에 주목하여 그의 저역서를 분석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다카하시 고로가 근대 일본에 뿌리내릴 수 있는 영어 번역법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근대 일본에서 일본어 문장을 망치는 오역이라고 비난받고 있었던 무리한 직역을 비판하면서 『영문역해법』에서 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다. 그에게 이상적인 직역이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일본어로 자연스러운 번역문이었다. 다카하시가 직역을 최상의 번역법으로 주장했던 배경에는 성서번역 경험에 기초한 번역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번역을 통해 근대 일본어를 창출하고자 한 의도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원문에 대한 충실함과 일본어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자신의 가톨릭 성서 『성복음서』 상하권의 번역과정에서 실천하면서 사전과 문법에 기초한 직역의 모범을 제시한 선구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Japanese English Translation Method

- Focusing on Takahashi Gorō's *How to Properly Translate English into Japanese* -

Kim, Sung-Eun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akahashi Gorō's translation method with a special focus on his achievement as a linguist of English. The analysi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he sought to explore an effective translation method which could lay the foundations for English-Japanese translation in modern Japan. He criticized the traditional word for word translation method for its mistranslation which could undermine Japanese sentences and redefined the meaning of literal translation in his work "*How to Properly Translate English into Japanese*." From his perspective, an ideal translation is the one that is faithful to the original texts and at the same time is natural in Japanese. His claim that such literal translation is the best strategy is rooted in his experiences of translating the Bible into Japanese and reflects his desire to establish the prototype of modern Japanese through translation. He can be evaluated as a pioneer in the field of translation who presented a model of literal translation on the basis of dictionary and grammar usage which emphasizes the faithfulness of the original text and the naturalness of the Japanese language. He embodied such important qualities of literal translation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Catholic bibles *Seihukuinsho* I and II into Japanese.